성인자녀 부양 특성과 정책과제[1)]

The Characteristics of Support for Adult Childre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청년층의 실업과 만혼화로 인한 성인기 지체로 가족 내 성인자녀 부양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성인자녀 부양의 장기화는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족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균형 있는 성인자녀 부양체계 마련에 대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인기 자녀의 노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성인자녀의 발달과업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성인자녀의 욕구에 맞는 발달과업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인자녀와 부모 간에 장기간 부양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인자녀-노부모 간 민주적 · 자립적 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서 지원 서비스 기반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 이행으로 개인주의화에 따른 독신가구의 증가, 이혼·사별로 인한 가족해체 증가, 가족 분거로 인한 고령 부부 증가 등과 같은 가족 규모 축소와 세대의 단순화로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혼인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 이혼·재혼가족의 증가로 가족 결속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한편, 가구주 고령화 및 한부모가족

1) 본고는 다음 보고서의 일부를 요약·발췌·보완한 것임.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다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신사회 위험에 노출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혼화·비혼화로 인한 청년층의 성인기 지체 현상은 약화된 가족 부양 환경과 맞물려 가족 내 성인자녀 부양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의 증가와 거주지 마련 비용의 상승은 성인기 자녀로 하여금 실질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주저하게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성인자녀가 특정한 목표 없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유예 상태에 머물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을 장기화하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도, 거주 독립도 못 한 채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취업을 한 성인기 자녀도 주택 마련을 할 수 없어 결혼을 못 하고 부모와의 동거를 장기간 이어 가는 현상도 늘어 가고 있다. 부모에 대한 성인기 자녀의 의존은 미혼인 경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결혼한 성인기 자녀 또한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부모와 합가하거나[2] 실직 또는 이혼으로 다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노후를 성인기 자녀에게 의존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양의 장기화는 노부모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부모의 노후를 위협하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기대치가 상이한 성인자녀 세대와 노부모 세대의 장기간에 걸친 동거는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 가족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강한 가족 유지를 위해 균형 있는 성인자녀 부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모색이 요구된다.

본고는 기존 조사 자료를[3] 활용하여 성인자녀 부양에 영향을 주는 가족사회 변화 원인 및 현상을 살펴보는 한편, 성인자녀 부양 특성과 정책 욕구 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2. 성인자녀 부양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성인자녀(adult children)에서 성인은 사전적으로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률적으로 민법상 19세 이상의 자연인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20~34세 또는 25~34세 등으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이라는 측면에서 학령기를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인 만 25세 이상의 자녀를 성인자녀로 정의코자 한다.

한편, 가족 내에서 성인자녀 부양의 개념은 일반적인 가족 부양의 개념에 근거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부양의 개념을 살펴보

2) 성인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가족을 캥거루 가족이라고 통칭함. 그리고 일단 부모 품을 떠났다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와 의존하는 성인자녀를 가리키는 리터루족(Returned Kangaroo)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남.

3)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족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함.

4) 일반적으로 부양은 경제적인 원조를, 봉양이나 수발, 돌봄은 신체적 및 정서적인 원조에 주목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양영자, 2009, pp. 127-152에서 재인용).

면 다음과 같다. 부양은 봉양, 수발, 돌봄 등 다양한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송다영, 2004).[4] 부양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창수(2009)는 부양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정서적 지원, 필요한 자원 제공, 인간관계 형성, 일상생활 또는 이동 시 도움,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도움의 제공 등을 포함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부양은 피부양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모든 욕구 측면에서 개인의 사적인 자원과 부양체계뿐 아니라 사회적 대처를 통해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한편, 부양은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한다. Caplan(1976)은 부양은 정서적 지원과 필요한 자원을 개인에게 제공하고, 개인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서소용, 김명자, 1998에서 재인용). 그리고 Horowitz와 Shindelman(1982)도 부양을 부양제공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서소용, 김명자, 1998에서 재인용). 이는 부양을 양자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는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Warren은 물리적 원조, 정서적 지지, 신체적 고통을 보살펴 주는 일, 외로울 때 위로와 시중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부양으로 정의하였다(이남순, 2006, pp. 172-193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부양 개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성인자녀 부양이란 도움이 필요한 성인자녀에게 동거 또는 비동거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정서적, 신체적 및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코자 하며, 여기서 부양은 돌봄이나 지원 등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한다. 부양 유형으로 경제적 지원은 금전과 물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정서적 지원은 피부양자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및 도구적 행위에는 신체적 독립과 가사 운영, 생활에 필요한 청소·심부름·질병 시 부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3. 성인자녀 부양 환경 진단

가. 자녀관 및 부양관의 변화

최근 산업화 및 소가족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가치관이 약화되면서 자녀 필요도와 자녀관의 의미가 약화되어 자녀 부양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필요도, 즉 '반드시 가져야 한다'와 '반드시 가질 필요 없다'는 비율의 추이를 보면 2000년에는 58.1%와 41.5%에서 2006년 53.8%와 46.2%, 2009년 55.9%와 44.1%, 그리고 2012년에는 46.3%와 53.5%로 자녀 필요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잘 보여 준다(김승권 등, 2000; 김승권 등, 2006; 김

4) 일반적으로 부양은 경제적인 원조를, 봉양이나 수발, 돌봄은 신체적 및 정서적인 원조에 주목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양영자, 2009, pp. 127-152에서 재인용).

표 1. 자녀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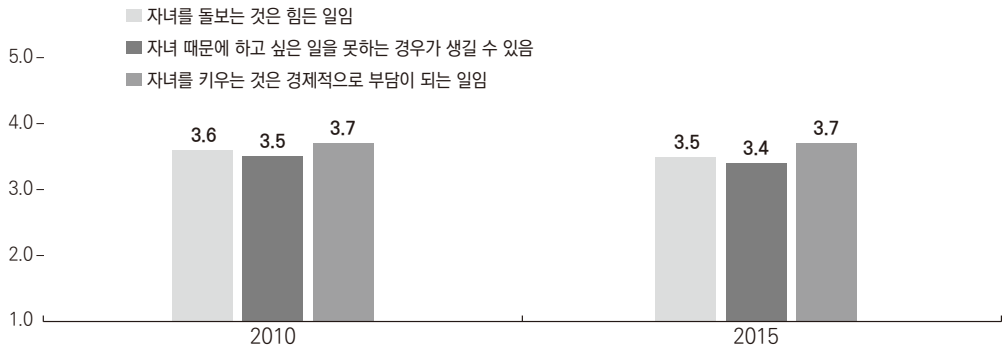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계
2000년	4.1	3.5	3.9	100.0(5,968)
2010년	4.0	3.7	3.7	100.0(4,754)
2015년	3.8	3.2	3.5	100.0(45,193)

주: 1점은 전혀 그렇지 않음, 2점은 별로 그렇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은 대체로 그럼, 5점은 매우 그럼으로 구성됨.
자료: 1) 여성가족부.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2)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3)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그림 1. 자녀 양육관의 변화

(단위: 점)



주: 1점은 전혀 그렇지 않음, 2점은 별로 그렇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은 대체로 그럼, 5점은 매우 그럼으로 구성됨.
자료: 1)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승권 등, 2009; 김승권 등, 2012). 자녀관을 3개 항목으로 살펴보면,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와 '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2개 항목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인식이 변하고,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2000년 3.5점에서 2010년 3.7점으로 다소 점수가 높다가 2015년에는 3.2점으로 부정으로 인식이 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가 주는 의미와 가치가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 변화

(단위: %, 명)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필요하면 언제까지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
2003년	8.3	40.2	11.5	32.1	6.3	0.6	1.0	100.0(11,106)
2006년	8.6	46.3	11.9	27.0	5.5	0.1	0.5	100.0(10,117)
2009년	9.6	49.6	12.2	23.1	5.0	0.1	0.4	100.0(9,075)
2012년	8.9	49.6	15.7	20.4	4.6	0.0	0.8	100.0(10,058)

자료: 1)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등.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 양육관[5]을 3개 항목으로 살펴보면,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임',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 항목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3.4~3.7점 범위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대해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함

그림 2.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2015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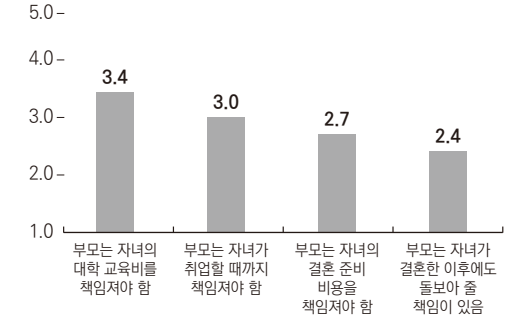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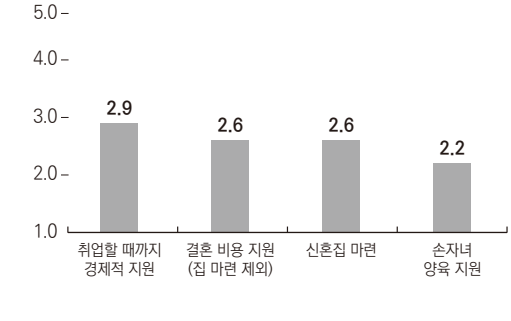


그림 3. 성인자녀 부양 책임 범위(2015년)

(단위: 점)



주: 1) 1점은 전혀 그렇지 않음, 2점은 별로 그렇지 않음, 3점은 보통, 4점은 대체로 그럼, 5점은 매우 그럼으로 구성됨.
2)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 책임이 낮은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책임이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1)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자녀 양육관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바, 분석 대상으로 성인자녀 외에 미성년자녀를 가진 사례도 포함되어서 해석 시 주의를 요함.

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 양육 책임의 범위를 보면, 2003년에는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가 4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가 32.1%였으며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라는 응답도 일부 나타났다. 이는 2006~2012년도에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최근 9년간의 자녀 양육 책임의 변화를 보면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만혼화 및 결혼 기피 현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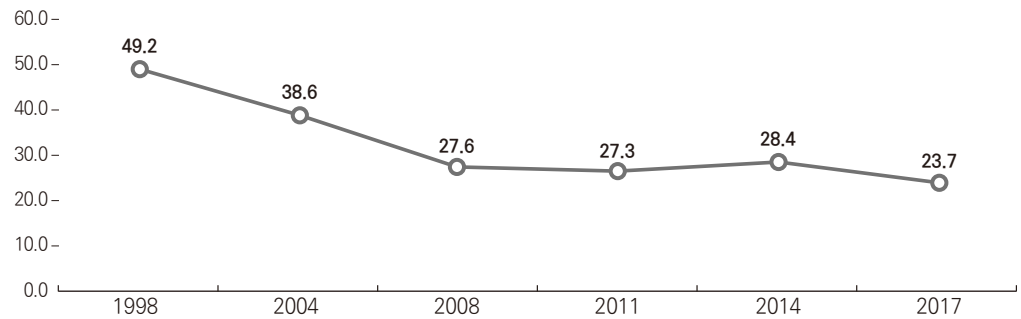
2015년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 범위는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한 책임이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취업, 결혼 준비, 결혼 이후 돌보는 책임으로 오면서 책임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여성가족부, 2015).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정도를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 '결혼 비용 지원', '신혼집 마련', '손자녀 양육 지원'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2~2.9점으로 4개 항목 모두 부모가 책임질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성인자녀 부양에 대한 부모 책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 관습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노부모-성인자녀 간 가족 결속력 약화

노부모-성인자녀 간 결속력은 부모와 자녀 간 동거 형태 및 교류 빈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비율

(단위: %)



자료: 1)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등.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곤, 이신영, 조준행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4)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 부모와의 교류 변화(1998~2017년)

(단위: %, 명)

구분	1998	2004	2014	2017
부모와의 전화 통화				
거의 매일	22.6	29.7	25.9	28.3
일주일 한두 번	51.9	49.8	47.0	52.7
한달에 한두 번	20.1	17.1	19.3	14.4
일년에 몇 번	3.6	2.3	5.7	3.2
거의 하지 않음	1.8	1.2	2.0	1.4
부모와의 만남				
거의 매일	12.3	11.4	10.8	9.6
일주일 한두 번	28.5	29.7	26.9	28.4
한달에 한두 번	36.5	36.2	31.5	37.0
일년에 몇 번	19.2	20.4	29.0	23.0
거의 하지 않음	3.5	2.3	1.8	2.1
계	100.0(2,094)	100.0(2,892)	100.0(9,745)	100.0(9,629)

자료: 1)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등.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 여부를 보면 1998년 자녀와의 동거가 49.2%, 비동거는 50.8%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부모-자녀의 동거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비동거가 증가하여 2017년에는 자녀와의 동거가 23.7%, 비동거는 76.3%로 비동거가 동거보다 3.2배 많았는데(그림 4), 이는 부모-자녀 간의 보호 환경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노부모-성인자녀 간 교류 빈도에서도 드러난다. 부모와의 연락 빈도에서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 번'은 1998년 74.5%에서 2017년에는 81.0%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부모와의 만남은 동일한 빈도가 1998년 40.8%에서 2017년 38.0%로 감소하였다(표 3). 이는 최근으로 오면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비동거 거주 형태가 증가해 단순한 연락 빈도는 증가하였으나 만남을 통한 심층적인 교류 빈도가 적어져 가족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초고령사회의 급속한 이행에 비해 노부모-성인자녀 간 비동거 거주 형태와 낮은 결속력은 가족보호체계의 약화와 함께 부양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노부모

와 성인자녀 간 부양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 청년층 인구의 실업과 미혼 수준

실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 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실업, 이직을 위한 자발적 실업, 청년 실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5〕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체 실업률을 나타낸다. 여기에서의 실업률은 구직활동 1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향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4~4.4%이던 실업률은 증감을 반복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인 2007~2008년에 오면서 3.2%로 감소하였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0년에 다소 증가하다 2011~201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그 이후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그림 5〕의 전체 실업률과 그 경향성이 유사하지만, 실업률 수준은 전체 실업률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 실업률은 7~9.8% 범위로 전체 실업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을 보이며, 성별로도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포인트 실업률이 높았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미혼인구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0년에 82.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94.1%에 이른다. 성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남성은 89.1%와 96.4%, 여성은 74.6%와 91.6%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간 미혼율의 차이는 2000년 14.5%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4.8%포인트를 보였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빠른 속도로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5. 실업률 추이(전체): 200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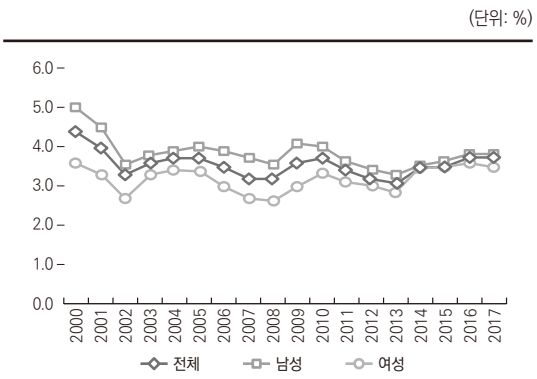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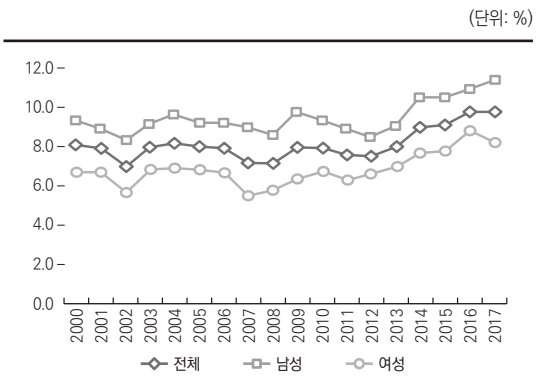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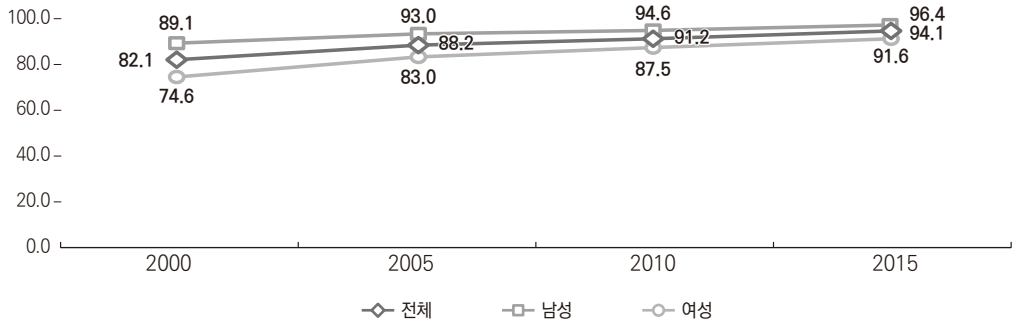
그림 6. 실업률 추이(15~29세): 2000~2017년



주: 구직 활동 1주 기준.
자료: 통계청. (2000-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7. 성별 청년층 미혼율 추이: 2000~2015년

(단위: %)



자료: 1) 통계청. (2000a). 인구 및 주택센서스
2) 통계청. (2010b).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8. 응답자의 성인자녀(만 25세 이상)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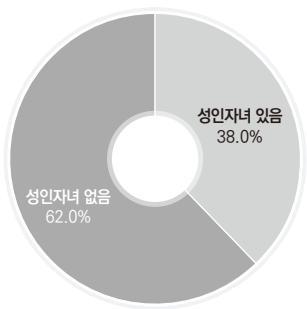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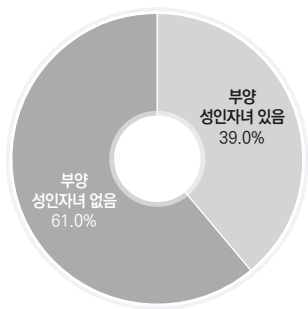


그림 9. 응답자의 부양 성인자녀 유무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성인자녀 부양의 특성 및 정책 욕구

가. 부양 정도 및 피부양자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실시한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응답자 1000명 중 기혼은 690명, 이 중에서 만 25세 이상 성인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38%

표 4. 응답자 특성별 부양하는 성인자녀 유무 및 부양하는 성인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부양하는 성인자녀 유무			부양하는 성인자녀 수				
	있음	없음	계	1명	2명	3명 이상	계	평균
전체	39.0	61.0	100.0(262)	69.0	30.2	0.8	100.0(102)	1.3
응답자의 연령								
40~49세	15.5	84.5	100.0(8)	0.0	100.0	0.0	100.0(1)	2.0
50~59세	43.2	56.8	100.0(175)	67.5	32.5	0.0	100.0(76)	1.3
60~64세	32.2	67.8	100.0(80)	76.5	20.3	3.2	100.0(26)	1.3
응답자의 혼인 상태								
유배우(동거)	39.7	60.3	100.0(245)	68.0	31.1	0.8	100.0(97)	1.3
사별/이혼/별거	30.0	70.0	100.0(18)	86.4	13.6	0.0	100.0(5)	1.1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 262명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262명 중에서 자녀가 학교를 졸업했거나 취업, 결혼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및 신체 수발 등의 도움을 주고 있는 비율은 39%(102명)이었으며, 실제로 부양하는 성인자녀 수는 1명이 69%로 가장 많았고 2명이 30.2%, 3명 이상이 0.8%로 평균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별로는 40~60대 연령층에서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약 16~43% 분포를

그림 10. 부양 성인자녀의 혼인 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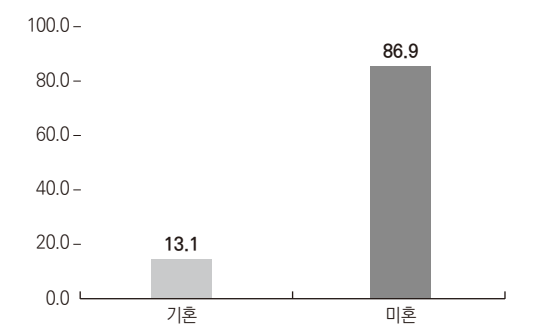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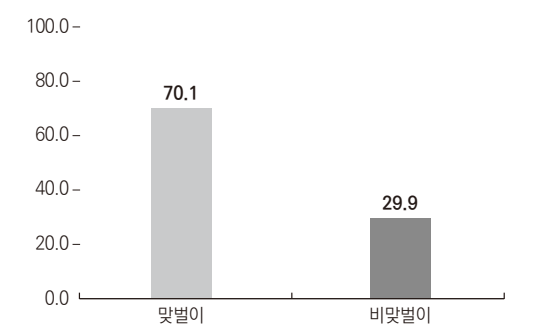


그림 11. 부양 성인자녀의 맞벌이 부부 여부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였다. 연령별로 부양하는 성인자녀 수는 분석 대상 수가 적은 40~49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50대와 60~64세는 평균 1.3명의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상태별로는 유배우(동거)인 경우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39.7%로 사별 · 이혼 · 별거인 경우보다 9.7%포인트 높았고, 부양하는 성인자녀 수도 유배우인 경우가 사별 · 이혼 · 별거보다 평균 0.2명 더 많았다.

응답자가 부양하고 있는 성인자녀의 결혼 상태는 기혼이 13.1%로 미혼인 86.9%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취업자 비율은 58.9%, 비취업자는 28%, 학생은 13.1%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취업 상태의 미혼자녀를 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인 기혼자녀 중에서 맞벌이 부부는 70.1%,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는 29.9%로 부양하는 기혼자녀의 3분의 2 이상이

표 5. 응답자의 연령별 성인자녀 부양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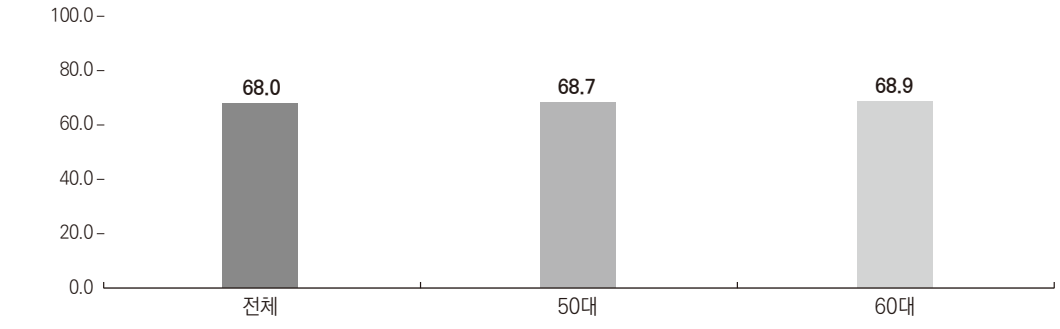
(단위: %, 명, 년)

구분	1년 이하	2~3년	4~5년	6~10년	11년 이상	계	평균
전체	24.1	32.3	17.8	19.9	6.0	100.0(102)	4.13
응답자의 연령							
40~49세	0.0	0.0	100.0	0.0	0.0	100.0(1)	4.00
50~59세	25.0	41.8	16.4	15.8	1.0	100.0(76)	3.17
60~64세	22.4	6.0	18.2	32.6	20.9	100.0(26)	6.93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2. 응답자의 연령별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맞벌이 부부로 나타났다.

나. 부양 기간 및 부양 방식

부모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은 2~3년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년 이하가 24.1%, 6~10년 19.9%, 4~5년 17.8%, 11년 이상 6.0% 순이었고, 평균 부양 기간은 4.13년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분석 대상 수가 적은 40대를 제외하고 50대는 성인자녀 부양 기간이 2~3년이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은 데 비해 60대는 6~10년이 32.6%로 가장 높았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성인자녀 부양 기간도 길어 60대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성인자녀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하는 성인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68%는 부양하는 성인자녀와 동거하였고 나머지 32%는 부양하는 성인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모두 부양하는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전체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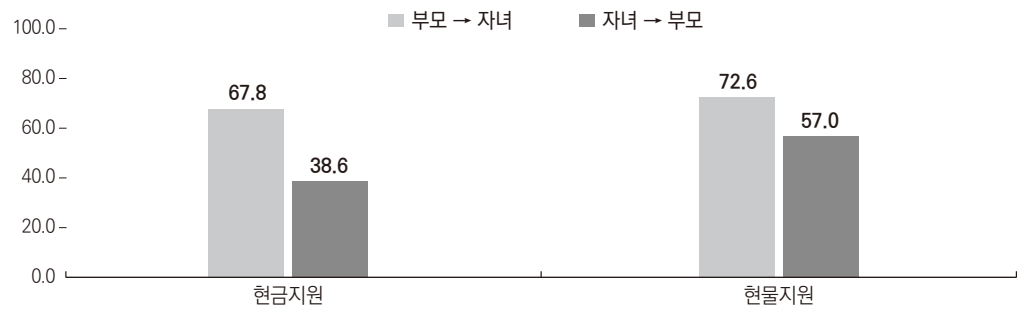
다. 부양 교환 실태

부양은 부양제공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전 생애를 통한 연속적인 상호작용으로(원자료 Horowitz & Shindelman, 1982; 서소용, 김명자, 1998에서 재인용) 가족 부양은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부모에 의한 성인자녀 부양이 가족 경제에 미치는 비용 부담부터 가족관계상의 갈등까지 성인자녀 부양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방향의 교환 실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주는 측면과 받는 측면의 양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부양에는 용돈, 생활비, 병원비, 부동산 구매 등의 현금 지원과 여행 및 관광, 건강용

그림 13. 경제적 부양 비교: 부모 → 자녀와 자녀 →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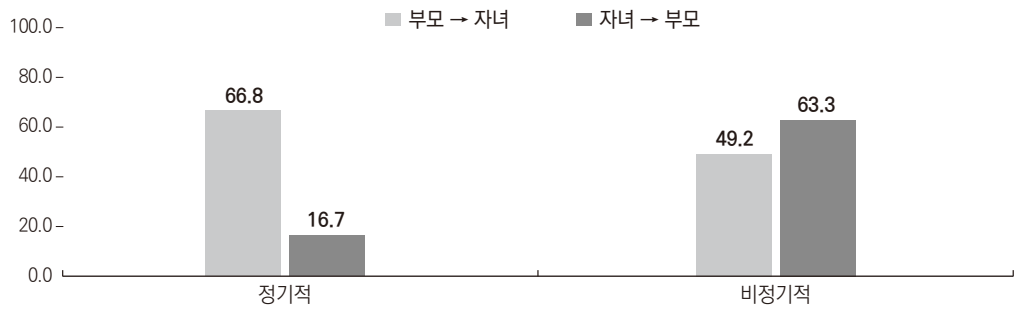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4. 경제적 부양 빈도 비교: 부모 → 자녀와 자녀 → 부모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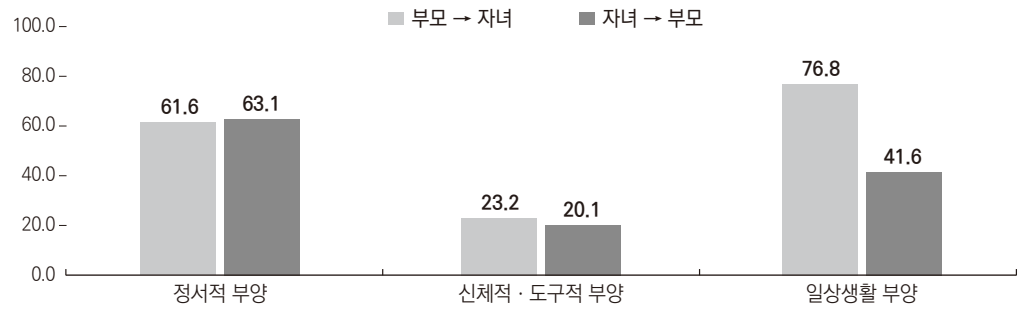
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외식 및 음식물 등의 현물 지원이 포함된다. 지난 1년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부양 유형을 보면, 현금 지원이 67.8%, 현물 지원은 72.6%로 현물이 현금보다 다소 많았다. 이에 비해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부양은 현금 지원이 38.6%, 현물 지원이 57.0%로 현물이 현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하는 부양이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부양보다 현금은 약 29% 포인트, 현물은 약 16%포인트 높았다.

지난 1년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부양 빈도는 정기적 지원이 66.8%, 비정기적 지원이 49.2%로 성인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비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 높았다. 반면,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부양빈도는 정기적 지원이 16.7%, 비정기적 지원은 63.3%로 비정기적 지원이 정기적 지원보다 3.8배 많았다. 부모는 성인자녀보다 정기적 지원이 4배 높아 정기적으로 부양하는 편인 데 비해 성인자녀는 부모를 비정기적으로 부양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경제적 부양에는 고민 상담 등의 정서적 도움, 간병 · 수발 · 병원 동행 등의 신체적 · 도구적 도움, 그리고 청소 · 식사 준비 · 세탁 등의 일상생활 도움이 포함된다. 지난 1년간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비경제적 부양은 일상생활 부양이 전체의 5분의 4에 근접한 76.8%, 정서적 부양은 절반을 훨씬 상회한 61.6%이며 신체적 · 도구적 부양은 23.2%로 다른 부양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한편,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부양은 정서적 부양이 63.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일상생활 부양 41.6%, 신체적 · 도구적 부양 20.1% 순이었다.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일상생활 부양을 주로 많이 하는 데 비해 정서적 부양과 신체적 · 도구적 부양은 부모와 성인자녀 모두 주고받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5. 비경제적 부양 비교: 부모 → 자녀와 자녀 → 부모

(단위: %)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 부양 비용 및 부담 정도

지난 1년간 응답자가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데 들인 비용은 월평균 73만 8000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73만 3000원, 60대 75만 4000원으로 60대가 50대에 비해 성인자녀 부양에 쓴 월평균 비용이 더 많았다. 60대의 경우 평균 부양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나 60대 연령층의 성인자녀 부양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16. 연령별 지난 1년간의 월평균 성인자녀 부양 비용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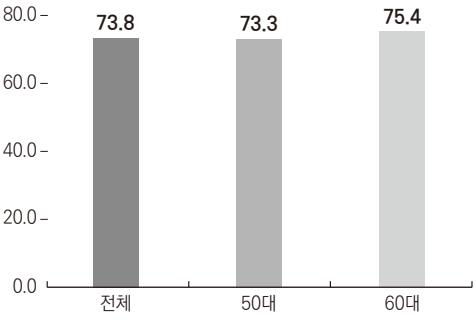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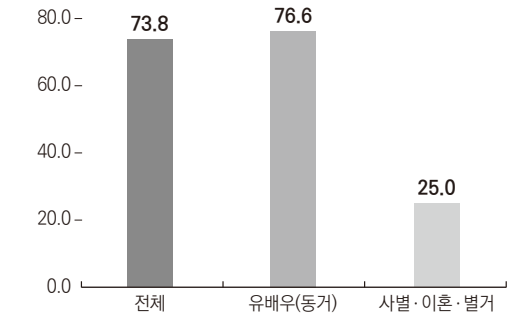


그림 17. 혼인 상태별 지난 1년간의 월평균 성인자녀 부양 비용

(단위: 만 원)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8. 연령별 성인자녀 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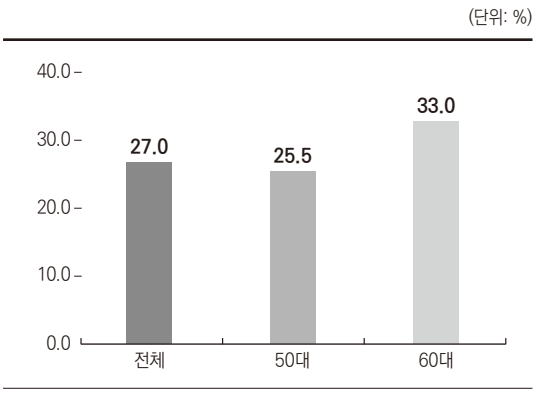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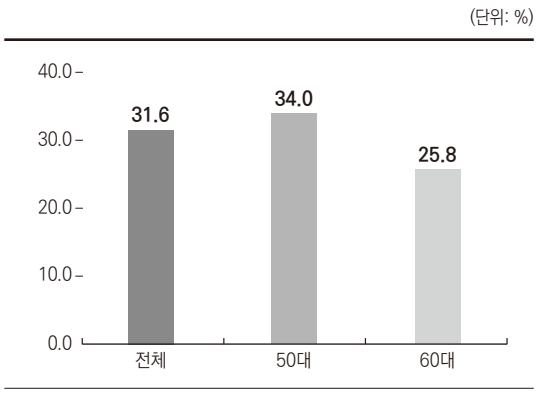


그림 19. 연령별 성인자녀 부양비용의 가계 부담 정도



주: 가계 부담 정도는 4점 척도에서 '비교적 부담이 된다'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임.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난 1년간 성인자녀 부양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7%였으며 50대는 25.5%, 60대는 33.0%로 60대 연령층이 50대 연령층보다 평균 부양 비용도 다소 높고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가계에 부담이 되는가를 보면, '비교적 부담이 된다'와 '상당히 부담이 된다'를 합친 비율은 31.6%로 응답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50대 34%, 60대 25.8%였다. 60대가 50대보다 성인자녀 부양 비용과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가계 부담 정도는 50대가 6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마. 부양상의 어려움

성인자녀 부양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양 비용 부담이 3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인자녀와의 갈등 29.8%, 기타 13.6%, 개인 및 사회생활 제약 10.1% 순이었다. 미미하나 부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배우자 및 다른 가족과의 갈등 등도 부양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는 부양 비용 부담이, 60대는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50대에서는 개인 및 사회생활 제약이, 60대에서는 부양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배우자 및 다른 가족과의 갈등이 전체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인자녀 부양 기간별로 볼 때,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부양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양 비용 부담과 자녀와의 갈등, 그리고 건강 악화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응답자 특성별 성인자녀 부양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부양 비용 부담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 및 다른 가족과의 갈등	부양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개인 및 사회생활 제약	기타	계
전체	39.2	29.8	3.1	4.3	10.1	13.6	100.0(72)
응답자의 연령							
50~59세	39.3	26.3	2.6	2.6	11.7	17.5	100.0(56)
60~64세	39.0	41.9	4.7	9.9	4.5	0.0	100.0(16)
성인자녀 부양 기간							
1년	30.0	34.9	3.8	8.5	7.6	15.2	100.0(19)
2~3년	39.9	23.6	2.9	0.0	14.8	18.7	100.0(25)
4~5년	69.9	14.7	7.9	0.0	0.0	7.5	100.0(10)
6~10년	25.3	43.1	0.0	5.1	15.4	11.0	100.0(14)
11년 이상	51.2	33.0	0.0	15.8	0.0	0.0	100.0(5)

자료: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나가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 실업 증가와 거주지 마련 비용의 상승은 성인자녀로 하여금 실질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기혼인 성인자녀도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부모와 합가하는 경향이 높으며, 실직 또는 이혼으로 기혼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일은 중장년층 이상의 부모 세대에게 이중 부양 부담을 주어 이들이 가족 갈등과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회적 지원체계는 미흡하고 성인자녀 부양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여 균형 있는 성인자녀 부양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성인자녀 부양 환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 필요도 및 자녀 양육 가치는 약해지고 있으며, 자녀 양육 범위에 대한 인식도 축소되는 데 비해 성인자녀 부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분석한 결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39%)은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였고, 성인자녀 부양 비용은 월평균 73만 8000원으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50대와 60대 초반에 높아서 성인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성인자녀 부양 가족의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메랑 키즈'라고 하여 학업이나 결혼 등으로 독립한 성인자녀가 졸업 또는 실업, 이혼 및 출산 등으로 인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자녀 부양은 중장년층 이상의 부모에게는 노후를 위협하는 일이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족의 경우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가족 수준에서 성인자녀를 부양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으로는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경제 불황으로 인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로 공부하여 졸업한 이후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면 대출금 상환 압박 역시 문제가 되므로 이에 관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 청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노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요보호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인자녀의 발달과업별 맞춤형 지원이다. 성인자녀 부양 환경에서 살펴본바, 청년층은 실업률이 높고 만혼화로 인해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과 같은 청년 무직자의 증가와 함께 성인자녀에 대한 부양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성인자녀의 생애주기별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성인자녀의 발달과업에는 졸업, 취업, 거주지 마련, 결혼, 출산 등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성인기로의 전이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성인자녀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학업을 마치지 못해 성인기로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학비 지원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직업 연계 및 직업학교 등록 지원,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발달과업이 중첩되어 있는 성인자녀의 욕구에 맞는 정책이 발달과업별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성인기 지연으로 인한 성인자녀 부양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은 39%로 나타났고 6년 이상 장기간 부양하는 비율이 약 26%에 이르며 60대 연령층이 11년 이상 성인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도 21%였다. 이는 노부모의 자기부양과 성인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고통이 예상되어 성인자녀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인자녀 부양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성인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청년 세대의 귀속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통해 구직 포기 청년층(실망 실업군)을 사회로 끌어내고, 필요한 직무와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춰 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협조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와 취업지원금제도는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인데, 이 외에도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인접한 곳에 독립적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 공급 시도는 중요하다. 아울러 서구와 같은 월세 시스템이 질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주택문화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주거 독립을 위한 현실적 방안은 부동산 및 경제 정책을 통해 모색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성인자녀 부양 환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혼인 가치관의 약화, 대학원 진학 및 취업 등으로 인한 만혼화 및 결혼 기피 등의 사회현상으로 성인자녀가 독립하는 가족축소기가 늦어지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자녀의 부모 의존이 증가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관계와 가족 기능을 위해 성인자녀-노부모 간 민주적·자립적인 관계 모색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부모와 성인자녀가 동거하는 비율(68%)은 전체의 3분의 2를 상회하고 부양 기간도 장기화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대부분이 은퇴자일 것으로 예상되는 60대는 11년 이상 성인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부모와 성인자녀 간 부양 갈등을 겪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 갈등 비율이 높은 편이고, 향후 동거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선행적으로 기존의 위계적인 세대 간 관계를 탈피하여 민주적·합리적인 가족문화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대 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일방적인 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족관계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정서 지원 서비스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성인자녀 부양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배우자 및 다른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개인 및 사회생활 제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 부양에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개인 및 사회생활의 제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세대를 위해서는 가족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정서·심리 지원 서비스가 내실화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 정서적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이러한 정서 지원 서비스가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과 양적·질적인 측면에서의 내실화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지역 내 설치된 가족 관련 기관은 지역 단위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센터 접근성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가족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1~2015). p. 27.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임성은. (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김유경, 김혜련, 박종서, 손창균, 최영준 등.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조애저, 이삼식, 김유경, 송인주. (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이건우. (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 간 부양분담 방안.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곤, 이신영, 조준행 등. (2008).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 196.

서소용, 김명자. (1998). 며느리의 시부모부양에 따른 보상, 부양의식, 부양행동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81-107.

송다영. (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 기혼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 207-233.

양영자. (2009). 농촌노인부부의 삶에 나타난 '생애사적 진행과정구조'의 재구성. 한국사회복지학, 60(1), 127-152.

여성가족부.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연구.

이남순. (2006). 현대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케어복지학, 2(3), 172-193.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용찬, 변재관,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8.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등. (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12, 228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34-137.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01, 137-138.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168, 199-200.

정창수. (2009). 대학생들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6.

통계청. (2000a). 인구 및 주택센서스.

통계청. (2000b).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00-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0a).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0b).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1).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4a).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14b).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